

중국의 번역연구 동향

김혜림
(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중국어 ‘판이(翻譯, fanyi)’는 ‘번(날아갈 번, 뒤집을 번)’과 ‘역(通辯할 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이를 다시 중국사전인 『대사전(大辭典)』에서 찾아 보면 “하나의 언어 문자를 다른 언어 문자로 바꾸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翻譯是, 由一種語言文字轉變成另一種語言文字, 但意義不變)”라고 풀이되어 있다(민국 74년: 3792). 즉, 중국사전에 따르면 번역은 옮김으로 정의되며 이 과정에서 옮김의 대상은 바로 의미로 의미의 불변성이 강조된다.

오늘날 중국어 ‘판이’는 말을 대상으로 한 통역과 글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 대한 통칭으로 번역사, 통역사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며 그 정체성에 대한 개념 규정에 따라 번역활동, 번역연구 혹은 역론(譯論), 번역학 혹은 역학(譯學) 등으로 나뉘고¹⁾ 이는 다시 그 대상에 따라 문자번역(筆譯)과 통역(口

1) 번역활동(翻譯活動)은 행위로서 번역하기(translating)에 해당하며, 번역연구(翻譯研

譯)으로 구별되며 후자는 성질에 따라 문학번역(文學翻譯)과 과학기술번역(科技翻譯)으로 구분하기도 한다(李亞舒 외 2004: 14).

중국의 학자들은 대체로 불경번역을 문헌상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번역으로 보고²⁾ 중국의 번역 역사를 대략 1) 동한(東漢)부터 수당(隋唐)에 이르는 불경번역 2) 명청(明清)시기의 과학기술 번역 3) 오사운동(五四運動) 시기의 외국문학작품 및 사회과학 번역 4)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출범 이후의 전방위 번역 시기로 구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李亞舒 외 2000: 13, 彭桌吾 2000: 1, 王秉欽 2004: 4, 嚴辰松 2006: 5).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친 중국의 번역 역사가 말해주듯이 중국에는 많은 번역가가 있고 그들의 실제 번역활동은 언제나 경험을 통한 번역이론의 시도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 번역이론은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개별 번역가 중심의 중국 번역 연구 발전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번역사(翻譯史)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김지원(2000, 2004), 김효중(2000), 유명우(2002)를 들 수 있는데 김지원(2000)은 더 이상 비교문학의 하위범주가 아닌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번역의 발전단계를 통시적으로 추적하여 올바른 번역학 정립을 위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김효중(2000)은 성서와 명작 중심의 전통 번역학 연구 중심에서 1950년 이후 실용적 차원에서 이론 연구 활성화로 이어진 독일 번역사를 정리하였다. 유명우(2002)는 번역이론의 개발과 번역 교육의 열개로서 번역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기구분을 시도하였으며 김지원(2004)은 고대 직역과 의역 중심의 번역 담론으로부터 현대 번역학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서양이나 우리나라의 번역사와 관련된 연구로 중국 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 번역사에 대한 개괄적 조망을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가 우리나라 번역학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번역 연구 발전사를 고찰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중

究)와 번역학(翻譯學)은 엄밀한 구분 없이 혼용된다.

2) 동한(東漢) 환제(桓帝) 건화2년(建和二年, 147년)에 이미 중국어로 번역된 불경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중국 번역 역사를 대략 1800년으로 잡고 있다(郭延禮 1998).

국 번역이론의 발전 흐름을 불경번역으로부터 시작된 전통 번역이론³⁾과 서양의 번역이론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다양한 번역이론이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시기를 열게 되는 현대 번역이론으로 나누고 전통 번역이론을 다시 형성기, 전환기, 발전기로 나누어 번역가⁴⁾ 중심으로 기술한 후, 현대 번역연구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전통 번역이론

문화란 전파와 흡수의 단계를 밟으며 새로운 문화로의 전이로 이어지는 통섭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 거대한 문화적 통섭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문화와 서구문화의 유입이다.⁵⁾ 이 과정에서 번역은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데 고대 불경번역의 시대에는 서양 번역사와 마찬가지로 직역과 의역의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직역에서 의역으로 그리고 다시 직역과 의역의 완벽한 결합을 의미하는 신역(新譯)으로 발전한 중국 고대 번역사상에서 중국 근대 번역의 아버지 엄복(嚴復)의 번역사상 ‘신(信), 달(達), 아(雅)’의 원형을 엿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전통 번역이론 형성에 본원적 영향을 끼친 불경번역에서부터 전통 번역이론의 형성, 전환, 발전을 번역가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1 불경번역

불경 번역의 시초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있는데 사학계 및 불학계에 공인

3) 본고는 중국의 전통 번역이론을 정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왕병흡(王秉欽 2004)의 『20세기 중국번역사상사(20世紀中國翻譯思想史)』,와 김혜림(2011)의 『중국 번역사상사』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4) 인명표기는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한자독음표기, 그 이후는 중국어 발음의 한글표기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5) 중국의 유명한 학자 계선림(季羨林)은 신문명의 유입으로 중화 문화의 물줄기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인도와 서구 문화의 유입이며 이러한 문명의 유입은 번역을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嚴辰松 2006).

된 학설은 서기 67년 천축(인도)에서 온 섭마등(攝摩騰)이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번역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설이다.⁶⁾

중국의 고대 불경 번역사는 외국인에 의한 번역이 대부분이었던 초기(동한 東漢-서진西晉)⁷⁾, 중국과 외국인의 공역이 주류였던 중기(동진東晉-수隋)⁸⁾, 자국인에 의한 불경 번역의 전성기였던 후기(당唐초-중엽)⁹⁾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불경 번역가들은 방대한 양의 불경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번역철학(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전통 번역사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겸(支謙)의 스승인 지참(支讖)의 번역철학은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원전의 깊고 현묘한 본질을 중시하고 글을 꾸미지 않는다(棄文存質)”로 평가받아 안세고와 함께 직역주의자로 꼽힌다(王秉欽 2004: 7). 지겸은 『법구경(法句經)』 서문에서 유기난(維祗難)과 축장염(竺將炎)의 『답발경(曇鉢經)』번역에 대한 이론적 평가와 함께 자신의 번역관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번역 이론에 관한 중국 최초의 글로서 원전이 함축한 진정한 의미(傳實)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 ‘신(信)’의 정신과 “경전을 전하는 자는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其傳經者, 當另易曉)”는 ‘달(達)’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중국어에 서툴러 그 뜻을 전함에 사뭇 투박하다(仆初嫌其辭不雅)”고 지적하면서 세련된 문체를 추구하는 ‘아(雅)’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훗날 엄복이 ‘신달아론’을 세우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경전 번역에 있어 지겸이 고수한 원칙은 의역으로 그의 번역문은 “성인의 뜻을 전함에 있어 그 문체가 우아하다”라는 평을 얻었다(王秉欽 2004: 9).

구마라집(鳩摩羅什)은 천축(天竺)인으로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했으며 서역 각국을 두루 다니며 불경을 섭렵했다. 403년 장안으로 이주한 후 불경 번역을 시작해 불경 74부, 384권을 번역하였으며 『법화경(法華經)』, 『금강경(金剛經)』 등과 같은 역작은 후대 불경 번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6) 또 다른 설은 불경 번역이 서기 147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고승전(高僧傳)』의 기록에 따르면 동한 말 승려 안세고(安世高)가 서기 147년에서 170년까지 서역 각국을 유람하고 낙양으로 돌아온 후 당시 가져온 불경 중에서 『수반수의경(守般守意經)』과 『인본욕생경(人本欲生經)』 등 34권을 번역했다고 한다(王秉欽 2004:5).

7) 대표적 번역가로 안세고(安世高), 지겸(支謙), 지참(支讖)이 꼽힌다.

8) 대표적 번역가로 구마라집(鳩摩羅什)과 인중(彦琮)이 꼽힌다.

9) 대표적 번역가로 현장(玄奘)이 꼽힌다.

구마라집은 원작의 문체를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이신위본(以信爲本)’을 강조했다. 즉 ‘신(信, 충실하게 원문 내용 전달)’의 기초 위에 ‘미(美, 수려한 문체)’를 추구함으로써 양자의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불경 번역 의역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인 구마라집의 번역은 자연스러운 중국어로 전달하되 원문의 의미를 거스르지 않으며 완곡하고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 운율을 살려냄으로 “글이 유려하고 적절하다(文辭流便)”이라는 평가를 받는다(王秉欽 2004: 11).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화경』과 같은 불교문학은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마힐(維摩詰)』은 소설과 희곡의 중간 형태를 띤 문학 작품으로 중국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隋)대 불경 번역가이자 번역 평론가인 언중(彦琮)은 그의 저서 『변정론(辯正論)』에서 중국 최초로 번역가의 자질에 대해 논하며 번역가는 ‘역덕(譯德, 번역자의 덕목)’과 ‘역재(譯才, 번역자의 능력)’를 겸비해야 한다는 ‘팔비론(八備論)¹⁰⁾’을 주장했다. 번역 전략에 있어서는 “소박할지언정 이치를 분명히 나타내어야 하며 기교를 중시해 원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宁貴朴而近理, 不貴巧而背源)”고 주장해 철저한 직역론자임을 밝혔다(王秉欽 2004: 13).

현장(玄奘)은 중국 불경번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645~663년까지 19년 동안 총 75부, 1335권의 불경을 번역했다. 그는 불경번역에 있어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중국어의 언어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既須求真, 又需求俗)”고 강조했다(王秉欽 2004: 15). 즉, 통속적인 문체로 충실하게 불경의 내용과 품격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지참의 직역과 구마라집의 의역을 모두 거부하고 직

10) 언중의 ‘팔비론’: ① 진심으로 불법을 사랑하고 뜻을 세워 남을 도우며 번역에 오랜 시간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② 품행이 단정하고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어 남의 의심이나 비난을 사지 않아야 한다 ③ 경전을 두루 읽어 핵심 의미를 꿰뚫고 있어야 하며 애매한 부분이나 의문점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④ 중국 경서와 역사서를 섭렵하고 문학에도 정통하여 서투름이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⑤ 도량이 넓고 겸허히 이익을 추구하며 독단적인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 ⑥ 도술을 깊이 사랑하고 명예와 재물을 중시하지 않으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해선 안 된다. ⑦ 산스크리트어에 정통하고 정확한 번역법에 숙련되어 산스크리트어 원본에 담긴 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⑧ 중국 훈고학에도 정통하여 번역본에서 글자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王秉欽 2004: 13)

역과 의역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신역론(新譯論)’을 개척하였다. 현장은 또 불경 용어의 번역에도 기여하였던 바, ‘오종불번(五種不翻)¹¹⁾’의 원칙을 제창했다.

서한 말에서 송대 초까지 1000년 동안 2만권 이상의 불경번역이 이루어졌으며 동한에서 수당까지 600년간 불경 번역의 전성기를 구가한 불경 번역사상의 역사적 공헌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중국 전통 번역 이론의 기틀을 마련했다. 불경번역은 직역에서 의역으로 옮겨가고 다시 직역중심의 번역 방법이 주를 이루다가 신역으로 이어지면 서 방법론의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며 중국 전통 번역 이론의 기틀을 마련했다.

둘째, 중국 문학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불경 번역은 백화(白話, 구어체)의 상용화를 주도함으로써 문체혁명을 이끌었으며 백화문의 지위를 격상시켜 당대 이후 다양한 문학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상상력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불교문학은 중국 낭만주의 문학 탄생의 배경이 되었으며 소설 또는 희곡 형태의 불교문학의 유입은 중국 문학 장르의 다양화를 촉발시켜 후대 소설 및 희곡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중국어의 어휘 및 표현을 풍부하게 했다. 현대 중국의 언어학자 쓰유웨이(史有爲)는 중국어의 사자성어 가운데 90%가 불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何其莘 외 2009:142에서 재인용). 이는 표음문자인 산스크리트어를 표의문자인 중국어로 옮겼던 번역방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불경 번역자들은 중국의 선진시기 언어가 관습적으로 4자구 표현형식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 불경고전을 번역함에 있어 ‘4자를 한 단위로 번역하는 방법(四字一頓)’을 사용함으로써 독경 시 리듬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어 조어방식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 불경번역이 성행하였던 위진(魏晉)시대 이후 이음절어, 다음

11) 여기서 불번(不翻)은 의역이 아닌 음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종불번(五種不翻)’ 원칙은 “① 다라니(陀羅尼)와 같은 비밀스럽고 심오한 용어는 번역하지 않는다. ② 박가(薄迦)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 다의어는 번역하지 않는다. ③ 염부수(閻浮樹)처럼 중국에 없는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는 번역하지 않는다. ④ 아누보리(阿耨菩提)와 같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이미 굳어진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 ⑤ 열반(涅槃)처럼 번역으로 원문의 의미가 퇴색하는 용어는 번역하지 않는다.”인데 이는 후대 번역가의 번역 작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바, 특히 20세기 초 ‘역명(譯名)’ 논쟁에서 주요 지침으로 작용했다.(陳福康 2000:34)

절어의 출현이 활발해졌으며 이로써 4자 격식 성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불경번역은 중국어에 새로운 어휘 및 표현을 풍성히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¹²⁾.

2.2 중국 전통 번역이론의 형성

명말 청초(17세기 말엽~18세기)의 과학기술 번역기를 거쳐 청말 민국 초기(19세기~20세기 초)의 서학 번역 시기에 걸쳐 불경 번역 이후 번역 대상 장르가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 서적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중국의 전통 번역이론이 등장한다.

명말 청초에는 외국인인 번역하고 중국인이 윤색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번역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 번역가로는 중국 과학기술 번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서광계(徐光啓)와 이지조(李之藻)가 있다. 서광계는 1605년에 이태리 선교사 마테오 리치와 협력하여 유클리드의 『기하원본(几何原本)』 등 14권을 번역 출간하였으며 이지조(1565~1630) 역시 마테오 리치와의 협업으로 『동문산지(同文算指)』 등 11권, 포르투갈 선교사 프랑스와 푸르타도와의 협업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변증법 개론』 등 10권을 번역 출간했는데 천문, 지리, 수학, 물리, 의학 등 수십 가지 자연과학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들의 번역은 독자가 번역물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독성이 좋았으나 역자 자신이 서양어에 정통하지 못한 연고로 단지 외국인의 구술번역을 윤색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후대에 남을만한 번역이론을 세우지 못했다.

청초 강희제(康熙帝)는 서학을 중시하여 많은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이 번역 보급되었으나 당시 유명한 번역가로 활동했던 사람은 모두 외국인 선교사들로 외국인이 주로 번역한 것을 중국인이 운문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전제군주제를 바탕으로 역서국(譯書局)¹³⁾을 설치하여 외국서적을 대량으로 번역함으로 서양 과학을 중국에 전파하는데 힘

12) 불경번역에서 파생된 새로운 어휘 및 표현에는 예를 들어 ‘연기(緣起)’, ‘세계(世界)’, ‘찰나(刹那)’, ‘순간(瞬間)’, ‘수기응변(隨機應變)’ 등이 있다.

13) 청조 최초의 역서관은 1757년에 세워진 러시아어문관으로 이후 19세기 후반 영어어문관과 독일어어문관까지 역서관의 활약은 계속된다(王秉欽 2004: 24).

썼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외국인과 중국인의 공동 번역이 늘어나고 과학기술 번역가가 배출되었다. 이로써 이 시기는 중국 번역사에 있어서 과학기술 용어에 대한 역명(譯名)¹⁴⁾ 통일 기준 마련과 과학기술 용어 사전 편찬이라는 족적을 남겼다.

청말 민국 초기에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반식민의 처지에 놓인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지식층이 서양의 학문을 번역 보급함으로써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로써 또 한 차례 서양 학문의 번역 붐이 일게 된다. 이 시기는 서양의 학문이 번역되면서 중국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로 구국을 위한 지식인의 번역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번역서의 대상도 자연과학에서 철학 및 사회과학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문학당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유학생이 귀국하면서 국내 과학자 및 학자형 번역가가 배출됨으로써 서양 번역가에 의존하던 종속적 번역 관행에서 탈피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번역 인재의 육성, 역서의 종류 및 수량, 번역의 품질 등에서 전시대 대비 획기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번역가로 양계초(梁啓超)와 엄복(嚴復)을 들 수 있다.

당시 유명한 언어학자로 서양의 문법 개념을 중국에 도입한 마건충(馬建忠)도 『번역서원 설립 계획에 관한 의견(擬設翻譯書院議)』이라는 글에서 나이가 주장한 효과의 등가 개념과 비슷한 이른바 원문의 정신, 여기까지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선역설(善譯說, 좋은 번역론)’을 제기하며 번역서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엄복의 신달아론에 문혀 주목을 끌지 못했다(何其莘 외 2009: 280-281).

강유위(康有爲)의 문하에서 동서양의 학문을 두루 접하면서 강유위와 더불어 유신변법운동의 주축을 이루었던 양계초는 『번역서에 관하여(論譯書)』에서 서구 문물과 사상을 배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양계초는 1899년 『청의보(淸議報)』에 부룬칠리(Bluntschli)의 『근대 국가론』을 번역 출간하였으며 몽테스키외, 마르크스 사상을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했다.

14) 역명이란 용어에 대한 번역 문제로 의역과 음역의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logic’은 변(辯), 명(名), 논리(論理)를 거쳐 음역인 ‘루어지邏輯(LuoJi)’로 정착되었다.

『번역을 논하다(論翻譯)』에서 밝힌 양계초의 번역철학을 살펴보면, 첫째, 번역해야 할 원본 선택에 있어서 서구의 정관과 법제도에 관한 서적 및 역사서, 외교문서, 농서, 상업서, 철학서를 번역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둘째, 번역 범례 확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번역서의 난해함이 명칭의 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기인함을 밝히고 인명, 지명, 관제, 사물명, 연대, 도량형 등에 대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번역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번역가는 중국어와 서양어 모두에 능통해야 하며 원서에서 다루는 전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가 제시한 ‘통학통문설(通學通文說)’은 번역가의 요건이자 번역서의 기준으로 이는 엄복의 ‘신달아론’보다 앞선 1897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양계초를 중국 번역이론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¹⁵⁾.

엄복은 서양이 강성할 수 있는 배경은 천체, 물리 등의 자연과학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철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이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하며 8대 역서¹⁶⁾를 통해 서양의 사회과학을 중국에 체계적으로 도입했다. 엄복은 이처럼 번역을 통해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인의 세계관과 사상이 근본적으로 계몽되길 희망했다. 엄복의 번역 작업으로 근대 중국의 서구 문물 도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엄복 당대뿐만 아니라 5.4 신문화운동 시기 사상 계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엄복은 『천연론(天演論)』의 역자서문을 통해 “번역의 세 가지 어려움은 ‘신(信), 달(達), 아(雅)’로 ‘신’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이다. ‘신’만을 추구하다 ‘달’하지 못하면 ‘번역’이라 하나 번역이 안 된 것과 같으니 어찌 ‘달’했다 할 수 있으랴...고로, ‘신’과 ‘달’ 외에 ‘아(爾雅)’를 추구해야 한다.”¹⁷⁾라

15) 양계초는 번역문체로 ‘통속어체’를 주장했는데 중국이 문체혁명을 거쳐 양계초가 주장한 ‘통속어체’가 대중화되면서 엄복이 추구한 ‘고어어체’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王秉鈞 2004: 46-47)

16) 토마스 헉슬리의 『천연론(Evolution and Ethics)』, 아담 스미스의 『원부(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허버트 스펜서의 『군학이언(Study of Sociology)』, 에드워드 젠크스의 『사회통전(History of Politics)』,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학(A System of Logic)』,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의 『명학천설(Primer of Logic)』, 샤를 몽테스키외의 『법의(De L'esprit des Lois)』, 존 스튜어트 밀의 『군기권계론(On Liberty)』

17) “譯事三難：信、達、雅。求其信，已大難矣。顧信矣不達，雖譯猶不譯也，則達

고 주장하며 가장 이상적인 번역의 조건으로 ‘신’, ‘달’, ‘야’를 꼽았다. 그가 말한 ‘신(信)’이란 원작(원문 텍스트)에 충실한 것을 말하며 ‘달(達)’이라 함은 번역문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이 곧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여겼다. ‘아(雅)’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가 “말에 문이 없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言之無文, 行之不遠)”는 『논어(論語)』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체(미적 추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한(漢)대 이전의 자법(字法)이나 구법(句法)’으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실제로 그의 번역본 가운데 지나치게 ‘아(雅)’를 추구한 번역문의 경우엔 글이 너무 어려워 고서(古書)를 많이 읽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다(郭延禮 1998: 237-262).

2.3 중국 전통 번역이론의 전환

5.4 운동은 지식인과 민중이 함께 주도하고 참여한 신문화운동으로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사상 계몽 및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했던 사회운동이다. 5.4 운동을 전후하여 기존의 문어체(文言文) 대신 구어체(白話文) 사용을 주창한 백화문 운동이 펼쳐졌으며 외국의 문학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중국에 전파되면서 신문학이 태동함으로 전통 문체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체를 추구하게 되었고 번역을 통한 외국 문학의 적극적 수용으로 사실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등 새로운 문예 사조가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신문학 시기에는 첫째, 서학(西學)번역 이후 신문학 시기의 번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신(魯迅), 곽말약(郭沫若), 진독수(陳獨秀)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의 주도하에 반제국주의 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번역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작품 수, 품질,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번역의 역할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둘째, 러시아 문학 및 마르크스 저작물의 번역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은 5.4운동 이전 시기의 번역이론 연구에 전환점을 제공했는데 당시의 문학혁명, 백화문운동은 번역문체혁명을 촉발시킴으로 전통

尙焉… 故信，達而外，求其爾雅。”(郭延禮 1998: 244).

번역사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당시 번역을 둘러싼 주요 논쟁으로 ‘백화문과 직역, 의역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신문학 시기 외국문학의 번역은 대부분 ‘직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신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역을 통해 외국의 것을 들여오므로 중국어를 살찌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信, 원문 지향)’과 ‘순(順, 독자 지향)’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양 실추(梁實秋)는 노신의 ‘경역(硬譯, 원문에 대한 충실성 중시/이국화)¹⁸⁾을 ‘사역(死譯)’이라 비판하며 이는 ‘곡역(曲譯)’보다 더 위험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경심(趙景深)은 독자 지향 번역론을 제기하면서 ‘신, 달, 아(信, 達, 雅)’의 순서는 ‘달, 신, 아(達, 信, 雅)’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서형(陳西滢)은 ‘신, 달, 아’ 가운데 ‘달’, ‘아’를 부정하고 “번역에 있어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신’으로 ‘신’은 ‘형사(形似)-의사(意似)-신사(神似)’의 3단계 번역이 있다¹⁹⁾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엄복의 ‘신달아론’과 같은 전통 번역이론을 비평하고 전통 번역이론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장이 대두되었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번역가로는 노신과 곽말약이 있다.

노신은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사상 혁명가이며 문학 번역가로 14개국의 작가 100여 명의 작품 200여 편을 번역했다. 노신은 당시 임서(林紓), 엄복과 같은 번역가가 서구문학 번역시 고문 형식을 차용하던 것에 반기를 들고 원작에 충실한 구어체 직역법이라는 새로운 번역이론을 내놓는다.

노신은 『차개정잡문이집(且介亭雜文二集)』에서 번역의 기준으로 ‘이해의

18) 노신은 ‘번역은 반드시 두 가지 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翻譯必須兼顧兩面說)’는 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궈저장(郭著章)은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운용함으로 신(信)과 달(達)에 도달한 경지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으나 천푸강(陳福康)의 의하면, 노신은 중국어에 적당한 표현이 없을 경우에는 서양어의 표현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중국어의 문법(文法)과 구법(句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번역가로 파악한다.(郭著章 외 1999, 陳福康 2000)

19) 형사(形似)란 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용만을 중시할 뿐 문체와 전체적인 풍격은 간과함으로써 결국 내용 전달도 어렵게 되는 단계이고 의사(意似)란 직역을 넘어서 원문의 내용 뿐 아니라 저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고려하나 원문의 정신은 전달하지 못한 단계이며 신사(神似)는 원문의 정신까지 전달하는 최상급의 번역을 말한다.(王秉欽 2004: 108-110)

용이성(易解)'과 '표현의 이국적 다양성(豊姿)'을 언급하고 번역의 역할로는 '정서의 전이(移情)'와 '지식의 전달(益智)'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이해의 용이성(易解)'은 가독성으로 '표현의 이국적 다양성(豊姿)'은 원문의 풍부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충실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가독성을 포기하더라도 충실성을 택해 독자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국적 정취를 살려야 하며 번역은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노신에게 있어 '경역(硬譯)'이란 직역을 통해 새로운 내용 뿐 아니라 새로운 언어 표현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그 중 일부는 도착 문화에서 수용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도태되기도 한다. 중역(重譯)과 재번역(復譯)에 관해서는 원문을 직접 번역하는 것이 독자와 작가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하여 중역을 반대하였으며 언어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바뀌므로 기존 역서의 장점을 배우고 모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로 재번역하거나 같은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고 재번역할 것을 장려했다.

노신은 또한 번역 비평과 관련하여 올바른 비평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번역 비평 부재는 많은 번역물의 생산에도 불구하고 결국 번역계를 황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저질 번역의 1차적 책임은 번역가에게 있지만 비평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만을 꼬집어 전체 번역 작품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다시 먹을 수 있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부분에 대해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한편 창작만큼 번역이 어렵고 지난한 작업임을 강조하며 번역과 창작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번역은 창작이다"라고 주장했다(王秉欽 2004: 125-126).

곽말약은 시인이자, 극작가, 사학자, 고문학자 겸 번역가로 외국의 문학, 정치경제학, 미술고고학, 과학계몽서 등 다양한 장르의 많은 작품을 번역했다.

곽말약은 번역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번역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았고 좋은 번역은 창작과 같다고 하여 번역과 창작의 등가론을 주장했는

20) 일반적으로 '신, 달, 아(信, 達, 雅)'가 각각 내용, 언어, 문체를 의미한다면 노신이 추구하는 내용에 대한 충실성은 엄복의 '신'보다 넓은 개념으로 내용과 형식(원작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을 포괄한다.

데 이는 노신과 같은 입장으로 이들은 모두 작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번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말약은 이상적인 번역 방법으로 원문의 자구, 의미, 정신이 그대로 재현되는 ‘풍운역(風韻譯)’을 주장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번역자의 풍부한 어학지식, 원작에 대한 이해, 작가에 대한 이해(共鳴說), 뛰어난 모국어 실력을 제시했다. 문학번역의 경우 번역문은 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번역문이 예술 작품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아(雅)’를 중시했으나 곽말약의 ‘아’는 문학 번역의 예술적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엄복의 ‘아’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중국 전통 번역이론의 발전

신문학의 태동으로 왕성하게 전개되던 번역활동은 항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시적인 침체기²¹⁾를 맞게 되지만 그 이후 번역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어지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함께 중국의 번역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서 이론 연구의 발전기를 맞게 된다.

특히 5.4운동 이후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번역에 동참하면서 학자형 번역가가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원문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번역과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좋은 번역은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신, 달, 아’를 둘러싼 번역 기준에 대한 2차 논쟁이 한창이었다. 이 시기는 중국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구소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때로 구소련의 원조 하에 이루어진 156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과학 분야 번역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문학과 역시 러시아 문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지만 도스토옙스키, 푸쉬킨 등 저명 문학가의 전집 번역이 전무한 상태여서 러시아 문학 번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번역에 실제 적용 가능한 과학적인 번역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시

21) 철학자 하린(賀麟)은 당시 번역계의 침체원인을 ①문인들이 창작에만 집중하고 번역을 간과 ②언어 실력이 뛰어난 인재가 드물고 번역을 쉬운 일로 생각 ③번역에 대한 정확한 비평 부족 등으로 분석했다.(王秉欽 2004: 166-167에서 재인용)

기의 대표적인 번역가로는 임어당(林語堂), 주광잠(朱光潛), 모순(茅盾), 부뢰(傅雷), 전중서(錢鐘書)가 꼽힌다.

임어당은 문학 번역가이자 작가, 언어학자로 외국의 문예 이론을 중국에 번역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대, 근대 고전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했으며 영문으로 저작물을 발표하기도 했다. 1933년 논문 「번역을 논하다(論翻譯)」를 통해 번역은 일종의 예술이며 번역가는 번역의 심미 주체로서 번역 과정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번역 미학 이론’을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번역가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으로 첫째, 원문의 언어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며 둘째, 매끄럽고 정확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모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번역훈련을 통해 번역의 기준과 방법론을 터득해야 한다. 또한 번역가의 3가지 책임으로 원작에 대한 책임, 독자에 대한 책임, 예술에 대한 책임을 들었으며 문학 번역가가 갖추어야 할 1가지 요건으로 번역가의 문학적 소양을 들었는데 이를 가리켜 임어당의 ‘3.3.1 이론’이라 한다.

임어당은 번역의 3대 기준으로 ‘충실성(忠實), 유창성(通順), 미학(美)’을 제시했는데 번역 미학의 중심 사상은 ‘의미와 정신을 전달하는 것(達意傳神)’이지만 그 핵심은 ‘정신(spirit)의 전달’에 있다. 그는 의미만 전달하고 정신을 전달하지 못한 번역은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어당은 번역문이 갖춰야 할 ‘5가지 아름다움(五美)’으로 소리의 미(音美), 뜻의 미(意美), 정신의 미(神美), 풍격의 미(氣美), 형식의 미(形美)를 주장했는데 이는 ‘형사신사론(形似神似論)’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임어당은 번역의 심미 객체는 원작이므로 번역문은 원문의 풍격과 내용을 똑같이 중시해야하며, 글의 아름다움은 내용(質)에 있지 않고 문체(體)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어당은 자역(字譯)에 반대하고 번역의 최소 단위는 구역(句譯)이며 글자(字)의 의미는 앞뒤 문맥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개별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상하문(上下文)’ 번역이론이다.

주광잠은 미학자이자 문예 이론가인 동시에 번역자로 중국에 서양 미학을 소개하는데 앞장섰다. 1944년 「번역을 말하다(談翻譯)」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원론, 이분법’ 개념을 원용해 엄복의 ‘신달아론’을 철학적으로 고찰했다. 그는 ‘신’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궁극적으로 ‘달’과 ‘아’를 내포한다고 주장했는데 즉 ‘신, 달, 아’는 대등하게 나란히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역과 의역이란 이분법적 접근에 반대했던 주광잠은 ‘말(言)’과 ‘뜻(意)’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의역이 동시에 직역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상적인 번역이란 매끄럽고 문맥이 잘 통하는 직역²²⁾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광잠의 번역 원칙은 “역지는 관심 있는 분야의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학가만이 문학 작품 번역을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번역 작업, 특히 이론서의 번역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번역 내용에 대한 감이 발휘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王秉欽 2004: 186).

모순은 혁명 문학가, 문화 운동가, 사회 활동가이자 번역가로 「문학서 번역 방법에 관한 토론(1921)」, 「모순역문집(茅盾譯文集)」(1980) 서문 등을 통해 번역 이론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운설(神韻說)’로 번역에 있어 ‘형식(形貌)’과 ‘신운’이 모두 중요하나 ‘신운’을 잃고 ‘형식’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형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신운’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운’이란 용어는 모순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부뢰의 ‘신사(神似)’, 전중서의 ‘화경(化境)’과는 다르다. 모순은 ‘신운’을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번역방법을 제시했는데 신운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휘와 어조에서 해법을 찾되 첫째, 어휘의 번역이 정확해야 하며, 둘째, 어조의 느낌이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순은 또 중국 고전 미학의 백미인 ‘의경(意境)’을 문학번역에 도입하여 문학번역의 근본 역할은 원작의 예술정신 즉 의경을 옮겨내는 것이라는 ‘의경론²³⁾’을 정착시켰다. 그는 이와 같은 ‘예술 창작 번역(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번역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접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문학서 번역자에 대해 1) 반드시 문학 연구자이어야 하며 2) 신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3) 창

22) 번역문의 명료성과 가독성을 추구하되 원문 텍스트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원문 그대로 직역한 후 필요한 주석을 병기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덧붙이는 방법.

23) 모순이 1954년 발표한 ‘의경설’은 1921년 발표한 ‘신운설’의 심화판으로 번역의 최고 경지를 뜻한다.

작의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번역과 창작은 동등하게 중요하며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많은 프랑스 문학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했던 부뢰는 『고리오 영감(高老頭)』의 서문, 「번역 경험에 관한 소고(翻譯經驗點滴)」 등을 통해 그의 번역관을 소개한다. 그는 먼저 번역이란 아주 신성한 작업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작과 원작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소양, 특히 예술적 소양을 넓히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부뢰는 또 1951년 9월에 쓴 『고리오 영감』 서문을 통해 “효과로 논하자면 번역이란 그림을 대하는 것과 같아 그 추구하는 바가 형태의 유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유사함에 있다(以效果而論, 翻譯應當像臨畫一樣, 所求的不在形似而在神似(王秉欽 2004: 231)).”²⁴⁾라고 하여 ‘신사론(神似論)’의 번역관을 내놓는다. 그의 번역이론의 핵심은 형태의 유사함이 아니라 정신의 유사함이 중요하며 번역문은 반드시 순수한 중국어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뢰의 신사론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원작의 정신을 철저히 파악해 원작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해한 내용을 충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는 것으로 그는 문장의 유창성, 풍부한 어휘 사용, 색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상적인 번역문은 원작자가 중국어로 쓴 작품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역자이자 사회과학자였던 전중서는 『설문해지(說文解字)』의 훈고문자를 인용하여 번역의 성격, 기능,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의 함정, 최고의 경지에 대해 ‘誘(유)’, ‘媒(매)’, ‘訛(와)’, ‘化(화)’로 설명한다. 그는 『임서의 번역(林紓的翻譯)』에서 “‘역(譯)’, ‘유(誘)’, ‘매(媒)’, ‘와(訛)’, ‘화(化)’ 는 서로 일맥상통하고 호응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시가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의어(polysemy)를 이루는데 번역의 역할(誘), 피하기 어려운 문제(訛), 이상적인 최고의 경지(化)를 보여준다.”²⁵⁾라고 하여 번역의 과정을 ‘유(誘)’를 이끌어내

24) 부뢰는 회화예술에 조예가 깊어 회화 전문 용어를 차용하여 번역이론을 세웠으며 중국 번역이론사에서 ‘형사신사’ 회화이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문학번역에 응용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25) “‘譯’、‘誘’、‘媒’、‘訛’、‘化’ 這些一脈通連, 彼此呼應的意義, 組成了研究

고 ‘와(訛)’를 피하며 ‘화(化)’를 구하는 과정으로 기술하고 ‘화경론(化境論)’을 주장한다.

전중서는 문화교류에 있어서 번역의 역할을 ‘유(誘)’와 ‘매(媒)’로 설명하고 있는데 번역은 중개자이자 연락원으로 독자에게 외국작품을 소개하고 외국작품을 즐기게 만드는 중매인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번역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원작에 재미를 느끼고 원작의 기분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소멸시켜 번역자 자신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참신한 번역관을 피력한다. 그는 또 번역문이 변형되어 원문과 달라지는 것을 ‘와(訛)’로 비유하는데 번역은 출발에서 도착까지 언어간 차이, 역자의 이해 및 문체 스타일과 원작의 내용 및 형식간의 차이, 역자의 자기체험과 표현 능력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변형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²⁶⁾ 그에게 있어 ‘화(化)’의 경지란 작품을 번역함에 있어 언어습관의 차이로 인한 생경하고 어색한 흔적이 전혀 없으면서도 원작의 색채를 그대로 유지한 번역을 말한다. 결국 ‘화(化)’란 번역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번역의 표준 또는 원칙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전통 번역이론의 흐름은 ‘질(質, 언어 형식의 전환)’에서 ‘신(信, 충실한 내용 전달)’을 거쳐 ‘화(化, 충실한 내용 전달과 함께 번역의 예술성과 창조성 구현)’로 발전했다.²⁷⁾

詩歌語言的人所謂“虛涵數意(polysemy, manifold meaning)”, 把翻譯能起的作用(‘誘’)、難以避免的毛病(‘訛’)、所向往的最高境界(‘化’), 仿佛一一透視出來了。”(王秉欽 2004: 240)

26) 이는 이태리 속담 “Traduttore traditore”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천푸캉(陳福康)은 이를 “번역가는 곧 반역자(翻譯者即反逆者)”로 번역했다. ‘반역(反逆)’보다는 ‘반역(叛逆)’이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원어 표현과 같이 운율의 조화를 살리기 위해 ‘반역(反逆)’을 쓰고 있다.(陳福康 2000: 416-423)

27) 이는 고대의 ‘문질설(文質說)’, 근대의 ‘신달아설’, 현대의 ‘신화설’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 번역 현상에 대한 인식은 형식을 중시하는 ‘질’로 두 언어 형식의 대응을 의미의 대응으로 여겼으며 산스크리트어에서 중국어로의 불경번역을 거치면서 내용을 중시하는 ‘신’으로 압축되었다가 언어적 의미가 같다고 문학적 의미까지 같은 것은 아님을 인식하면서 ‘화’로 심화 발전되었다.

3. 중국의 현대 번역이론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에서는 번역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번역 이론이 출현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해외 번역 이론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번역 연구는 중국적인 번역학의 발전을 도모했던 전통파와 서양의 과학적인 번역이론 도입을 통해 중국 번역학의 발전을 꾀했던 서학파로 대별된다.

3.1 전통파와 서학파

전통파는 만국 공통의 보편적인 번역 이론체계는 확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언어 현실에 부합하며 문화적 특징이 녹아 있는 중국 특색의 번역학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반면, 서학파는 번역학은 번역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과학에는 국경이 없으며 중국 특색의 번역학은 지칫 번역학의 발전을 지엽적인 민족적 특성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순수이론을 통해 메타언어적인 차원의 틀 속에서 번역 현상을 해석하고 예측하며 보편법칙을 추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시기엔 해외 번역이론 중에서도 특히 나이다의 번역이론이 많은 번역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바, 중국의 번역담론을 나이다의 번역이론에 견주어 분석하는 ‘나이다 현상’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나이다 이외에 야콥슨, 캣포드, 빌스 등 언어학 기반의 서양 번역 이론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는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가 촉발되었으며 이는 번역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서학파의 대표 학자 탄짜이시(譚載喜)는 1984년 『나이다 이론 번역(奈達論翻譯)』을 발표하여 나이다의 이론을 중국에 소개하였으며 1989년에는 「번역학 수립의 당위성(必須建立翻譯學)」을 통해 객관적, 주관적 시각에서 번역학 연구가 부진한 요인을 설명하고 ‘번역’을 언어문자의 의미를 다른 언어문자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번역학’을 번역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함으로써 번역과 번역학의 개념을 구분했다.

중국 번역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 번역이론의 발전을 도모했던 전통파

의 대표 번역가로는 왕취량(王佐良), 쉬옌충(許淵沖), 예쿵젠(叶君健)이 있는데 왕취량은 영미문학연구가이자 문학번역가로 『신시기의 번역관(新時期翻譯觀)』을 통해 번역은 본래 조화와 변증의 예술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번역은 정제된 작업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작업으로 ‘신, 달, 야’만으로 번역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충실성의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번역문의 전체적인 효과가 원문과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역자가 충실해야 할 대상은 원작의 정신으로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테크닉이 아닌 예술이며 재창조라고 보았는데 이는 번역 행위의 목적성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왕취량은 또 어떤 번역자도 독자에 대한 고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독자에게 다가가는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엄복에 대한 연구(嚴復的用心)」에서 엄복이 한(漢)대 이전의 고어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언어 스타일에 기인한 선택이 아니라 당시 사대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독자 지향적 번역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는 또 서양과 마찬가지로 번역학에 있어서 문화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1984년과 1985년에 왕취량의 「번역 속의 문화비교」, 「번역과 문화 변영」이라는 글이 발표되면서 번역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왕취량이 제안한 번역의 문화학적 연구는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기 번역연구의 문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1990년대 들어서는 전통적인 언어학적, 문학적 번역연구에서 벗어나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기술번역학이 시작되었으며 번역연구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접근이 각광을 받았다. 이처럼 중국의 문화학과 번역 연구는 서양 번역 연구의 문화 전환과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쉬옌충은 번역가이자 번역이론가로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모방하여 적용하거나 이론을 위한 이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경험과 실천에 근거하여 가장 중국적인 번역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번역학 연구는 원리가 아닌 현상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신역론(新譯論)’을 제안했다. 또한 서양의 이론이 서양 언어 간 번역을 연구했다면 중국과 서양 언어 간 번역 이론은 그 분야에 정통한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번역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세경쟁론(優勢競賽論)’²⁸⁾을 펴기도 했다.

예견젠은 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며 개성 있는 번역 작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번역에서 절대적인 ‘信’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번역은 ‘복제’가 아닌 원작의 정신을 전달하는 ‘재창조’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창조’는 역자의 재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역자의 문학적 소양과 예술성, 작품에 대한 이해 정도, 개인적인 인생 감회 등의 요소가 번역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정품론(精品論)’을 주장한다. ‘정품론’이란 한 작품이 다른 언어로 번역 된 후에 도착 문화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도착 문학의 구성요소로 자리 잡는 것을 말하며 번역은 작품의 단순한 ‘이식’이 아닌 ‘재창조’라고 보는 시각이다.

3.2 번역학 수립과 최근 연구 동향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수립과 관련하여 중국은 1951년 등치우스(董秋斯)가 번역학 수립의 당위성을 주창한 이래 번역학의 정체성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번역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 번역학과 수립의 문제가 주요 담론으로 대두하였다(최지영 2005).

중국에서 번역학은 대학원 이상 전공(비교 언어학, 응용 언어학, 비교 문학 등)에서 세부 전공으로 인정받아왔으나 개혁 개방 이후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통번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1년 청도에서 개최된 ‘전국 번역학 학과 건설 심포지엄(全國譯學學科建設專題討論會)’을 기점으로 독립된 학문 분과로서 번역학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2006년 교육부에서는 학부에 번역학과 설치를 승인²⁹⁾하고 2007년 1월 23일 중국 국무원 학위위원회에서는 번역 석사학위

28) “최고의 ST를 대등한 TT로 만들었다고 해서 가장 좋은 번역이 되는 건 아니다. 서양 언어 간 번역은 언어체계가 유사해 대등한 번역이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중국과 서양 언어 간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 체계로 인해 각 언어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는 바, 번역 과정에서 TL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에 대한 논의가 ‘충실성’ 여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적합한 TL로 원문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경쟁론이다.”(王秉鈞 2004: 279)

설치를 통과시켰다³⁰⁾.

하지만 1992년 11월 국가기술 감독국에서 발표한 「학과분류 및 코드」³¹⁾에 1992년 이전까지만 해도 2급 학문으로 분류되었던 번역학이 언어학, 응용 언어학 아래 세부과목(第三級學科)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번역학의 독립학문으로의 정체성 확립은 제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에는 통번역 전문대학원이 대거 설립되었는데 2003년 4월 상하이외국어대학 통번역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중국의 최초 통번역학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번역학 이로서 출판도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였다.

2000년도 이후 발표된 중국의 번역 관련 박사논문을 쉬쥘(許鈞) 외(2009)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³²⁾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된다.

1) 통번역 역사 연구(번역가, 중국 전통 번역이론, 통시적 정리, 통번역 관련 역사적 사건, 특정 작품 소개 및 수용), 문학번역 연구, 통번역이론 연구(일반이론 연구, 서구 번역이론 연구, 번역사회학, 번역과정/번역행위, 번역 주제성, 번역학 체계 연구)가 주를 이룬다.

2)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는 연구진이 대학교 외국어

29) 중화인민 공화국 교육부[2006] 1호 문건 「2005년도 교육부 승인 고등교육기관 학부 전공개설 결과에 대한 통지(關於公布2005年度教育部備案或批准設置的高等學校本科專業結果的通知)」에서 ‘번역전공’(전공 코드:0502555)으로 승인을 받아 2006년부터 학부생 모집이 가능해졌다.(庄智象 2007: 1)

30) 중국 국무원 학위위원회는 제23차 회의를 통해 「번역석사전공 학위개설방안(翻譯碩士專業學位設置方案)」을 통과시켰다.
<http://202.205.177.9/edoas/website18/56/info27656.htm> 참고.

31) 중국 국가기술 감독국에서는 1992년 11월 1일 「학과분류 및 코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1993년 7월 1일 공식 시행되었다. 「학과분류 및 코드」는 학문분야를 총 58개의 1급 학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1급 학문 아래 573개 2급 학문, 6천 여 개의 3급 학문을 둔다. <http://zh.wikipedia.org/wiki/> 참고.

32) 상하이외국어대학(上海外國語大學, 통번역대학원+일반대학원), 북경외국어대학(北京外國語大學), 복단대학(復旦大學), 북경대학(北京大學), 남개대학(南開大學)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분류기준은 쉬쥘(許鈞) 외(2009)의 주제별 분류 키워드인 번역사(특정시대, 특정인 연구 포함), 문학번역, 번역이론,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번역연구(언어 비교), 문화번역, 번역비평, 통번역교육, 통역, 기타(이중어사전, 코퍼스, 기계번역 등)에 따랐다.

전공 출신이 많아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기호학, 컴퓨터공학 등 다른 학문의 시각을 도입한 학제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3) 방법론으로 볼 때, 대부분 경험론적, 인문학적 방법(문헌연구, 비교, 귀납 등)에 치중되어 있어 기술적이고 실증주의적인 방법론(관찰, 조사, 실험, 인터뷰 등)이 부족하다.

4) 최근 2~3년 사이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Global Communication)’ 관련 박사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번역 연구 동향을 『중국번역』³³⁾ 게재 논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된다.

1) 통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 수립에 대한 논문이 다수 게재되어 독립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인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연구주제와 내용의 다각화 추세를 보이는 바, 방법론적으로는 코퍼스나 TAPs 등 실증적인 방법들이 일부 활용되기도 하나 여전히 문헌연구, 이론 소개, 단순 텍스트 분석 등 경험적, 정성적 방법론이 주를 이룬다.

3) 다양한 서구 이론이 소개되고 응용되고 있어 연구 내용의 다각화, 외국 의 새로운 연구 성과 소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³⁴⁾

4) 중국의 통번역 역사, 중국 전통 번역사상이나 번역가를 고찰하는 연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³⁵⁾

33) 중국번역협회회간(中國翻譯協會會刊) 「중국번역(中國翻譯)」

<http://www.tac-online.org.cn> 참고

34) 일례로 『중국번역』은 다음과 같이 특집호를 발간했다. 2002년 5기 ‘이국화/자국화’, 2003년 5기 ‘이데올로기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집중 논의, 2003년 1기/3기 ‘번역의 주체’에 관한 집중 논의, 2004년 4기 ‘페미니즘이 번역연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집중 논의, 2011년 1기 ‘사회학적 관점의 번역’, 2011년 2기 ‘생태번역학’.

35) 이와 관련하여 『중국번역』에 실린 논문으로는 2008년 1기 왕요구이(王友貴)의 「중국번역 전통연구: 중역에서 직접번역으로 1949~1999 (從轉譯到從原文譯 1949~1999)」, 2009년 5기-6기/2010년 1기 ‘중국 번역계 60년 회고’, 2008년 4기 ‘부패 탄생 100주년 기념’ 관련 논문, 2011년 4기 루위링(盧玉玲)의 「타자가 절여된 비판-‘17년’ 영미 비판적 현실주의 번역 연구 1949~1966(他者缺席的批判-‘十七年’英美批判現實主義學翻譯研究 1949~1966)」, 우원(吳贊)의 「정치화된 읽기와 해석-‘17년’ 중국에서의 영미시가 1949~1966(政治化的閱讀與闡釋-‘十七年’英美詩歌在中國1949~1966)」 등이 있다.

5. 나오는 말

중국은 불경번역에서부터 많은 번역가가 나와 번역철학을 설파했다. 특히 전통 번역이론의 뼈대를 이룬 ‘신달아론’은 불경번역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근현대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전통 번역이론의 형성, 전환, 발전을 주도했다.

요컨대 중국의 전통 번역이론의 흐름은 ‘질(質, 언어 형식의 전환)’에서 ‘신(信, 충실한 내용 전달)’을 거쳐 ‘화(化, 충실한 내용 전달과 함께 번역의 예술성과 창조성 구현)’로 발전했던 바, 이와 같은 번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번역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번역 이론이 등장했으며 해외 번역 이론의 유입으로 언어학 중심의 번역연구에 이은 문화주의, 기술주의, 기능주의 등 새로운 번역 연구 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박사과정이 개설되고 학위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번역학은 아직 독립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통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 수립에 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어 독립 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인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주제와 내용의 다각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중국의 통번역 역사, 중국 전통 번역사상이나 번역가를 고찰하는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원 (2000) 「번역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5(1).
 김혜림 외 옮김(2011) 『중국 번역사상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王秉欽 (2004) 『20世紀中國翻譯思想史』,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김효중 (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김효중 (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독일의 전통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試論)」, 『번역학연구』 3(1).

- 최지영 (2005) 「중국 통역번역 연구의 발전 과정과 현황-개혁 개방 이후 통역
번역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
간』 제14집
- 허지운 외 옮김, 김혜림 감수 (2010) 『번역학 발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
판부. (Snell-Hornb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大辭典』(民國七十四年) 臺北: 三民書局.
- 王秉欽 (2004) 『20世紀中國翻譯思想史』,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 張柏然 (2002) 『面向21世紀的譯學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許鈞 (1998) 『翻譯思考錄』,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 劉宓慶 (1999) 『當代翻譯理論』,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 譚載喜 (1999) 『新編奈達論翻譯』,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 郭著章 외 (1999) 『翻譯名家研究』,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 陳福康 (2000) 『中國譯學理論史稿』,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彭卓吾 (2000) 『翻譯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 郭延禮 (1998) 『中國近代翻譯文學概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 李亞舒, 黎難秋 (2000) 『中國科學翻譯史』,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 李亞舒, 黃忠廉 (2004) 『科學翻譯學』,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 嚴辰松 (2006) 『中國翻譯研究論文精選』,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何其莘, 仲偉合, 許鈞 (2009) 『中西翻譯簡史』,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王洪濤 (2008) 『翻譯學的學科建構與文化轉向』,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 許鈞, 穆雷 (2009) 『中國翻譯研究(1949-2009)』,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庄智象 (2007) 『我國翻譯專業建設: 問題與對策』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참고 웹사이트 :

中國知网 <http://www.cnki.net/>

中國翻譯協會會刊「中國翻譯」<http://www.tac-online.org.cn>

[Abstract]

Trends in Chinese Translation Research

Kim, Hye Rim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humankind, translation has always played a role in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This was particularly true in times of rapid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of new civilizations and ideologies, when the introduction of ideas and spread of civilization through translation proceeded at a rapid pace.

China went through two great periods of cultural exchange in its history, namely when Indian culture and Western culture were introduced to the country respectively, in the process of which translation played a crucial role. With the objective of studying the flow of translation research in China, this paper looks at the two main translation theory streams of those times – traditional translation theory, which began with the translation of Buddhist sutras, and the diverse translation theories that formed when many schools of thought entered China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translation theory – and thereby examines trends in Chinese translation research focusing on formation, changes, and development of theory.

▶ Key Words: Traditional translation theory, Buddhist sutra translation,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Translation discourse, Western translation theory

54 번역학연구 ● 제3권 4호

김혜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hyerim@ewha.ac.kr

관심분야: 번역학, 통번역교육학, 대조언어학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